

# 니카라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0.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21천 Km <sup>2</sup>	G D P	61억 달러 (2009년)
인구	5.74백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961달러 (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제	통화단위	Gold Cordoba(C)
대외정책	실리외교	환율 (달러당)	20.34

- 니카라과 경제는 HIPC 수혜, DR-CAFTA 발효 이후 제조업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주요 원조공여국들의 원조 축소로 인해 급속히 둔화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도 중미 국가 중 가장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오르페가 대통령이 2011년 대선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 당분간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외채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HIPC 채무구제 이후 채무부담이 크게 경감된 점 등을 감안하여 중전 등급을 유지코자 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제성장률	4.2	3.1	2.8	-1.5	2.2
재정수지 / GDP	-5.7	0.4	-1.2	-2.3	-1.2
소비자물가상승률	9.4	16.9	13.8	0.9	6.8

자료: IMF, EIU.

#### □ 경제성장세 회복 추세

- 중남미 최빈국인 니카라과는 2004~07년 동안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보세가공무역(마킬라산업) 호조, HIPC의 완결시점 도달 등 대내외 여건 개선에 힘입어 3%~5%의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마킬라산업 성장세 둔화, 주요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 동결 및 삭감,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정국불안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세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주요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 동결 및 삭감,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경기침체 지속, 해외근로자 송금 축소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1.5%)을 기록함.
- 2010년에는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세 전환과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나, 미국의 더딘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부진 및 해외근로자 송금 축소, 오르떼가 대통령의 연임 시도에 따른 정국불안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민간투자와 소비가 매우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 전체로는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상승압력 완화

- 고유가 지속,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등으로 2007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9%로 급등하였음. 2008년에도 3/4분기까지 이어진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8%를 기록하는 등 높은 물가가 지속되었음.
- 2009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완화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9%까지 하락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원유와 농산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니카라과는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하였으나, 긴축정책과 재정개혁, IDB, WB 등 국제기구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2007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가 0.4%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지방선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축소, 조세개혁 지연 등으로 재차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전기료 등 비용 감소 노력을 통해 당초 목표인 -1.8%보다 양호한 -1.2%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9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 그리고 선진국 원조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폭은 -2.3%로 확대되었음.
- 2009년 11월 법인세 인상, 자산세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향후 GDP의 0.7%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수입 증대가 기대되나, 2010년 4월 말 오르페가 정부가 공무원 임금인상(매월 25달러 해당) 조치를 단행하는 등 선심성 재정지출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 오르페가 대통령은 동 공무원 임금인상 재원이 전액 베네수엘라의 무상원조를 통해 조달될 예정이므로 IMF와 합의한 공무원 임금인상 금지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MF는 이를 계기로 니카라과에 대한 확대여신기금(ECF: Extended Credit Facility, 종전의 PRGF) 4차 리뷰 승인을 보류하였음. IMF의 금융지원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여타 국제금융기구와 선진국 공적원조기관들의 니카라과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IMF와의 합의사항 이행과 IMF의 ECF 자금인출

승인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한편, IMF는 2007년 10월 니카라과에 대한 113.5백만 달러(78백만 SDR)의 PRGF를 승인하였고, 현재까지 약 85백만 달러(54.1백만 SDR)을 집행하였는 바, 동 리부 승인 시 미집행잔액 37.9백만 달러(23.9백만 SDR)가 집행될 예정임.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수출 구조가 취약하고 해외 원조 의존도가 높음

- 커피, 사탕수수를 비롯한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이 총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국제가격 변동과 기후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음.
-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 이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산업용 중간재, 자본재 및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액이 수출액의 두 배에 달하는 등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으로 경상이전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이를 주로 해외 원조로 보전하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인프라 부족 및 정치 불안정으로 투자 부진

- 니카라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석유 등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고, 인프라 설비가 미비하며,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IMF 프로그램에 따른 경제정책 수행

- 2004년 HIPC 완결시점에 도달한 이후 추진된 IMF의 PRGF 프로그램은 2006년 12월 8일 완료되었으며, 니카라과 정부는 2007년 10월 IMF와 3년 만기 신규 PRGF 프로그램(110백만달러)을 개시하는데 합의하였음.
- 2010년 7월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니카라과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재정수지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금년 10월 종료 예정인 IMF의 ECF(PRGF 프로그램의 대체 프로그램) 연장 여부가 중요하며, 니카라과가 IMF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동 ECF의 1년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710	-1,001	-1,513	-841	-983
경상수지/GDP	-13.6	-17.9	-24.2	-13.7	-16.0
상 품 수 지	-1,451	-1,759	-2,211	-1,540	-1,695
수 출	2,034	2,336	2,538	2,387	2,841
수 입	3,485	4,094	4,749	3,927	4,536
외 환 보 유 액	922	1,103	1,141	1,573	1,580
총 외 채 잔 액	4,106	3,422	3,559	3,633	4,021
총외채잔액/GDP	78.5	61.1	57.0	59.1	65.5
D S R	7.1	7.8	7.7	10.7	9.9

자료: IFS,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기반의 미비에 따른 소비재 수입과 산업용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큰 폭의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22억 달러에 달하였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24%인 15억 달러로 급증함. 2009년에도 미국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도 대폭 축소되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폭은 각각 15억 달러와 8억 달러(GDP의 -13.7%)로 축소되었음.
- 금년에도 커피 및 설탕 가격 호조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경기 회복으로 마길라산업의 수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수입액 급증,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재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17억 달러로 증가하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GDP의 -16%인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지속적 증가

- 니카라과의 외환보유액은 2004년 6.7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HIPC의 완결시점 도달 이후 국가리스크가 낮아진데 힘입어 FDI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대외원조가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 2009년에는 15.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8년 이후 정국불안과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FDI 유입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 유입도 감소하여 향후 외환보유액 감소가 예상됨.

□ 외채탕감 수혜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낮은 수준

- 외채탕감 수혜로 인해 외채규모가 2004년 51억 달러에서 2006년 41억 달러, 2007년 34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GDP 대비 총외채 규모도 2005년 105%에서, 2007년 61%로 현저히 감소하였음.
- 2008년 이후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를 경감시키기 위한 경기부양책 실시로 인해 외채 잔액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 말 외

채 잔액은 GDP의 65.5%인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니카라과의 외채구조는 거의 대부분이 양허성 차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은 약 4억 달러, D.S.R.은 10% 내외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낮은 수준임.

### III.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2000년 초반까지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 경험

- 콘트라반군(Recontras)의 반정부 활동과 산디니스타 세력과의 무력 충돌 등으로 1994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치, 사회불안이 계속되었음.
- 1990년 정권 교체 이후 우파가 계속 집권해 왔으나, 집권 세력의 부패 의혹, 좌익 산디니스타와의 토지소유권 반환 분쟁, 국영기업의 감원 및 민영화 계획에 대한 노조의 저항 등으로 정치, 사회 불안이 지속되었음.

##### □ 2006년 11월 다니엘 오르떼가 대통령 당선

- 2006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의 다니엘 오르떼가(Daniel Ortega)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7년 1월 10일 취임
- FSLN의 의석수가 총 92석 중 38석으로 과반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오르떼가 대통령의 급진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등으로 오르떼가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임.

##### □ 오르떼가 정부, 민주주의 위협

- 2008년 11월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졌던 산디니스타 당이 예상을 뒤엎고 총 146개 선거구 중 94개 선거구에서 승리하자 주요 야당인 PLC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UN, EU 등에 재검표를 요청하려 했으나 오르떼가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거부함.
- 오르떼가 대통령은 PLC의 대표 아르놀도 알레만(Arnoldo Aleman)을 부정



선거 의혹을 무마시킨 대가로 부패 및 자금 세탁에 대한 유죄 판결로부터 구제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정 부패 스캔들이 지속되자 2009년 초 주요 원조 공여국 및 기관들이 니카라과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도 함.

- 2009년 10월 대법원에서 연임 금지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오르떼가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주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항의가 잇따랐으나, 2011년 11월 대선에서 오르떼가의 연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빈곤, 범죄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

- 세계은행의 빈곤축소 프로그램에 따라, 극빈층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GINI 지수가 0.52에 이르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함.
- 2008년 지방자치단체 부정선거 논란 이후 다수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고, 최근 수도인 마나구아를 중심으로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치안이 악화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주요 원조 공여국과의 관계 악화

- 미국과의 FTA 체결, 투자 확대 등으로 대미 관계가 호전되었으나, 2008년 지방선거의 부정선거 논란 이후 서방 원조 공여국들이 원조를 잠정 중단하는 등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 □ 인접국과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 유지

-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인접 국가들과는 영토분쟁으로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2005년 9월 코스타리카가 San Juan 강의 사용과 관련하여 니카라과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함에 따라 코스타리카와 긴장관계를 형성하였으나, 그 밖의 중미 국가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금년 4월 니카라과를 방문한 온두라스 로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온두라스 신정부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베네수엘라에 대한 의존도 확대

-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오르떼가 대통령 취임식 직후, 니카라과에 대한 에너지 공급, 정유공장 건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대외원조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아울러, 과거 산디니스타 집권기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며, 쿠바와의 협력도 강화함.

□ 실리주의적 친서방 외교정책 병행 추진

- IMF 등 국제기관의 경제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고,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원조 및 FDI 등 경제협력 비중이 높아 베네수엘라 등과의 친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는 등 실리주의 외교정책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 상환 태도

□ 대규모 외채탕감 실시

- 니카라과는 2004년 1월 HIPC 완결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파리클럽으로부터 현가기준 45억 달러(명목가격 기준 63.3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을 수혜 받게 되어 이후 외채상환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음.
- 파리클럽은 2004년 3월 니카라과의 파리클럽 채무 9억 달러(NPV 기준)를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채권국 및 국제기구의 채무탕감이 이루어져 2007년 니카라과의 외채규모는 GDP의 61%인 3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에 따라 18억 달러의 국제기  
구 채무를 추가로 탕감 받음.
- IMF는 2005년 말 당해년도 1월까지 발생한 니카라과의 IMF에 대한 1.3억 달  
러 채무를 100% 탕감해주기로 결정함.
- 2006년 7월에는 World Bank도 2005년까지 발생한 채무 6.9억 달러를 전액  
탕감해 주었음.
- 또한 2007년 3월 IDB는 역내 5개의 최빈국 지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니  
카라과의 채무 9.8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음.

## 2. 국제시장평가

###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순위 최하위권

- Moody's로부터 사실상 디폴트 등급인 Caa1 등급을 부여받고 있으며 국제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중장기 자금 도입이 불가능함.
- OECD는 2009년 7월 동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하위인 7등급으로 유지하였음.

### □ 주요 ECA 지원태도 : 제한적 지원

- US EXIM :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가능, 중기인수 제한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 교역규모는 164백만 달러 수준(2009년)

- 수출: 163백만 달러
- 수입: 1백만 달러

### □ 투자잔액은 16건 34.9백만 달러(2009년 말 기준)

## V. 종합 의견

- 니카라과 경제는 HIPC 수혜, DR-CAFTA 발효 이후 제조업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주요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 축소로 인해 급속히 둔화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도 중미 국가 중 가장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오르떼가 대통령이 2011년 대선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 당분간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외채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HIPC 채무구제 이후 채무부담이 크게 경감된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 등급을 유지코자 함.

【이 기 수】